



Fly Together 2014 MAR vol.171

# Fly Together

2014 | 03  
VOL.171 | [www.koreaaero.com](http://www.koreaaero.com)

# 대한항공의 안전은 이제 우리 항공기로



FA-50(경공격기)



KFX(한국형전투기)



해상작전헬기



LAH(소형무장헬기)

방산 기술개발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2013.5.22 수리온 전력화 행사 박근혜 대통령 축하 중>

**KAI**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KAI는 콜럼버스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니까

공중극예기 T-50B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화려한 공중곡예 공연을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팀.(2014.2.11~16)

## 변화에 도전하는 자만이 신대륙을 만날 수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서쪽으로 향해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아메리카 신대륙 또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구나 아는 길을 돌아 새 길을 개척한 그의 과감한 도전이 인류 역사의 페이지를 다시 쓰게 만든 것이다. 2014년, KAI는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한 LAH/LCH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힘찬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항공기가 세계의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수놓듯, 그들은 이제 콜럼버스와 같은 도전정신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척자가 될 것이다.

# C o n t e n t s

04 **핫이슈**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형상에 대한 궁금증

### Speciality KAI

- 08 Cover Story  
변화에 성공하려면, '용기'를 품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 12 Special Tip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
- 14 KAI Story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 Professional KAI

- 16 Zoom in KAI  
Singapore Airshow 세계의 하늘에 대한민국을 그리다
- 18 항공업계 뉴스  
새로운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세계의 항공산업
- 20 도전과 실패 열전  
콘베어 R3Y 트레이드윈드
- 22 에듀 플러스  
자동차에 숨은 항공기술, HUD

### Harmonious KAI

- 24 어울림 KAI  
(주)포렉스 정해영 대표이사
- 26 으라차차 우리실  
신규사업구매실
- 30 KAI가 쓴다  
구조시험팀 김기범 책임연구원
- 34 카이피플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진정한 능력자들

### Life Plus

- 36 리더스 클럽  
자신을 드러내는 콘텐츠 톤&매너 잡기
- 38 강추 그 곳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경남 하동
- 42 책 읽는 당신  
생산관리팀 박성현 차장
- 43 감성예세이  
'이런 사랑'을 주세요
- 44 머니 팁  
당신의 노후 대비 연금보험 선택은?
- 46 SNS Talk  
3월 시작, 작심삼일 안녕

- 48 KAI NEWS
- 50 TALK BOX



16



30



26

### Fly Together

vol.171 | 2014 MAR

발행인 하성용 발행일 2014년 3월 7일(통권 171호·3월호·비매출)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략홍보팀 담당자 오동훈, 문선주(055-851-0234)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빌딩 8F) 기획·취재·제작 중앙일보시사미디어(02-6416-3985)  
디자인 어진, 디자인(02-701-7405) 사진 OPEN(070-4027-0903)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며,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 한국형 전투기 단발엔진과 쌍발엔진 KF-X 개발 형상에 대한 궁금증

KF-X 사업은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문의가 쏟아질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KF-X 개발 형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탓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KF-X 형상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본다.

## Q1 KF-X 형상은 어떻게 설계된 것인가?

2012년 한국국방연구원(이하 KIDA)는 탐색개발을 통해 도출된 쌍발형상(C-103)에 대해 체계개발 추진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낸다. 해외기술이전 가능성 등 개발리스크가 높고 전력화 일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한 국방예산 초과가 예상되며 수출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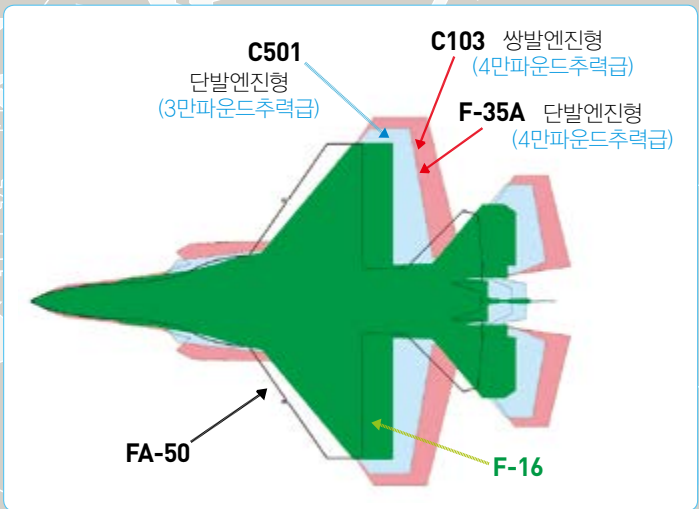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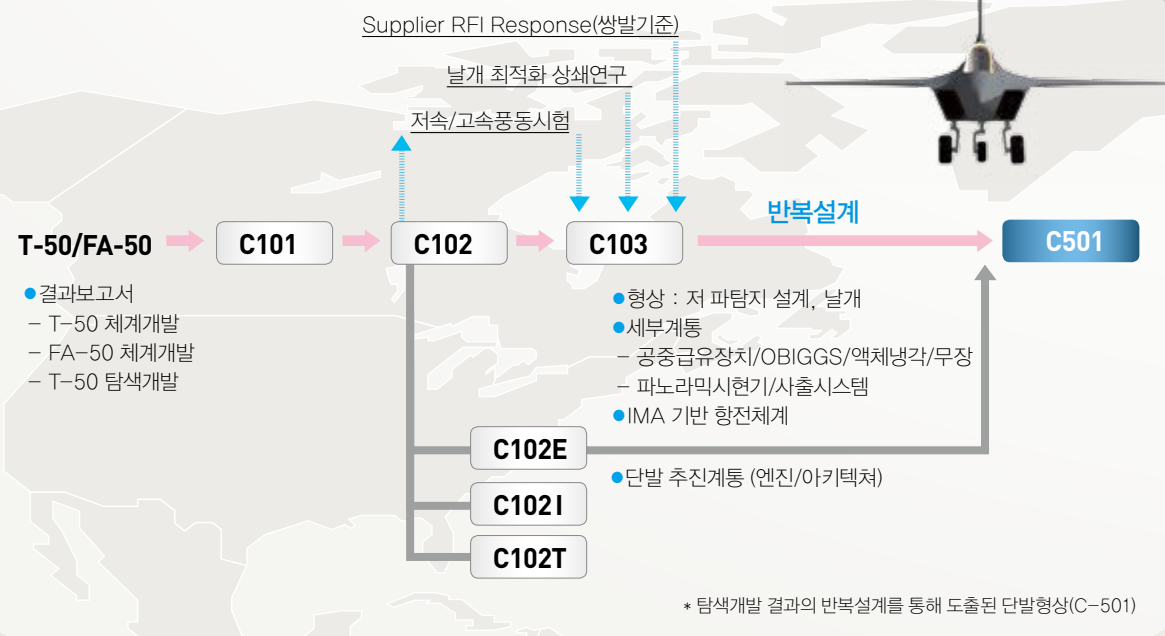
2013년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군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정부기관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단발형상(C-501)이 제안되었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현 단계에서 타당성은 미흡하나 핵심기술도입 등 8개 쟁점에 대한 해결 시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조건부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어 올해부터 KF-X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C-103, C-102E(단발) 등의 상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반복설계를 거쳐 도출된 단발형상은 쌍발형상과 약 90% 수준의 설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매우 흡사하다. 이로 인해 국산화율도 두 형상 모두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단발형상과 쌍발형상은 KF-X 해외 기술협력 후보업체 3사(보잉, 에어버스, 록히드 마틴)에 설계 기술검토를 의뢰한 결과, 모두 공군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단발형(C-501)	쌍발형(C-103)
형상	* Option 형상(V-Tail) 	
외형	신규 Platform 스텔스형상 (무장 반매립형)	신규 Platform 스텔스형상 (무장 반매립형, 내부무장 Provision)
기반기술	FA-50 개발 기반의 기술	
기체크기	Medium급	High급
엔진	1개 (30,000 lb급)	2개 (20,000 lb급 x 2)
성능	ROC 충족 / 전투성능 동일 수준	

\* 단발형상과 쌍발형상은 모두 FA-50 개발 기술을 활용하는 스텔스형상의 신규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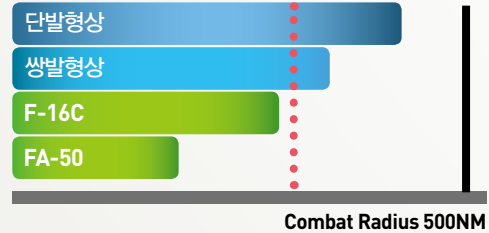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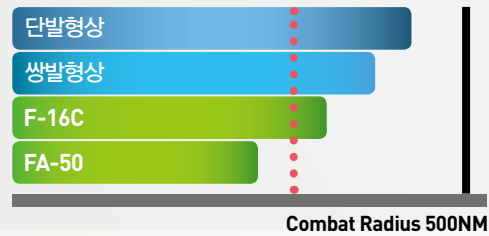
두 형상의 크기를 살펴보면, 단발형상은 F-16 대비 약 130%, 쌍발형상은 약 150%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단발형상과 쌍발형상은 모두 개발 확정된 형상이 아니며 앞으로 약 6회 이상의 설계 반복 과정을 실행해 최종 개발 형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Q2 Medium급 전투기 KF-X의 성능은 어떨까?

KF-X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High급과 차별화된 고효율 중급(Medium, KF-16+성능)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KIDA가 실시한 전투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발형상과 쌍발형상 모두 공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동등한 수준의 전투능력과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 공대공(위)/공대지(아래) 작전반경 비교 (1NM/해리=1,852m)



구분	요구도	단발형상 (1)F110-132	쌍발형상 (2)F414	F-16C (1)F100-229	
최고속도(Mach)	≥0.0	98%	93%	100%	
실용상승고도(ft)	≥00,000	104%	99%		
최대상승률(fpm) *100% 내부연료	≥00,000	101%	99%		
지속선화율(deg/S) *Opt Mach *(2)WVR	10kft	≥00.0	102%		95%
	15kft	≥00.0	106%		98%
	25kft	≥0.0	105%		100%
가속성능(sec) *M0.8-1.2 *30kft/(2)WVR	≥00	110%	118%		
추력대중량비 *50%내부연료 *(2)WVR	≥0.0	100%	109%		

〈F-16과 비교한 KF-X의 기동성능〉

단발형상은 높은 연료효율성을 바탕으로 추력 대비 우수한 기동성과 넓은 작전반경을 자랑한다. 반면 쌍발형상은 쌍발엔진이 가진 높은 추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가속성능과 추진력을 가졌으나 단발형상 대비 연료효율성이 약화되어 작전반경은 비교적 짧다. 작전반경은 단발형상이 쌍발형상 대비 공대공 약 110%, 공대지 약 120% 수준으로 공대지 공대공 모두 넓다.

### Q3 단발형상과 쌍발형상의 안전성 차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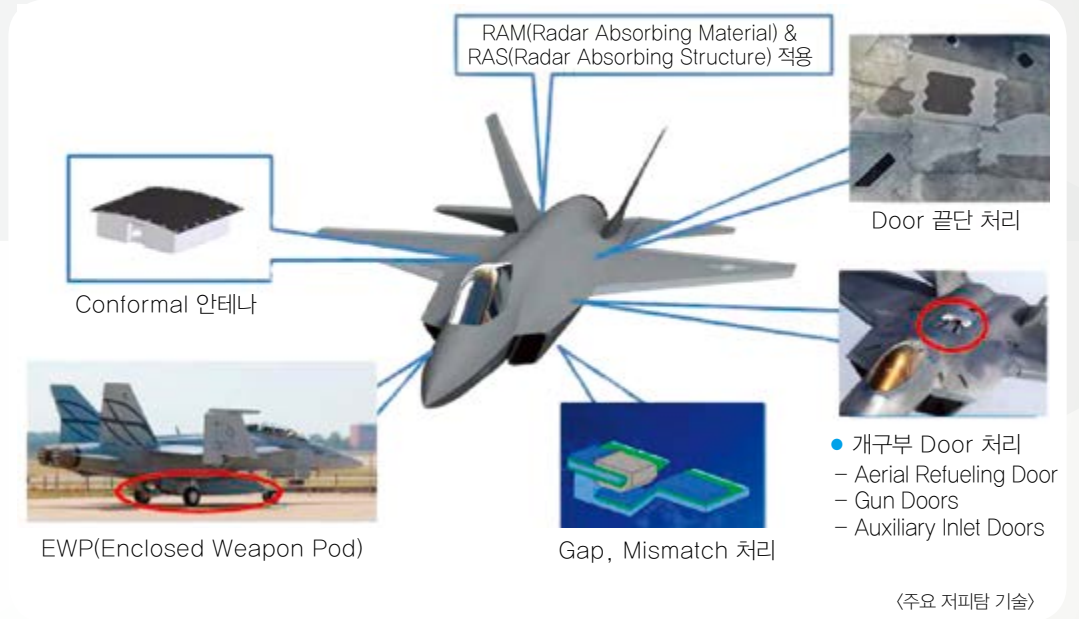
안전성 문제는 이미 1990년대 T-50 개발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질문이다. T-50의 개발 전 과정을 지켜본 취재자가 집필한 〈T-50 이렇게 만들었다(이정훈 저)〉 중에도 T-50 개발 초기 대두되었던 단발엔진과 쌍발엔진의 안전성 이슈에 관해 언급되어 있다.

“과거에는 단발기보다 쌍발기가 안전했다. 엔진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엔진이 꺼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쌍발기는 한 개 엔진이 꺼져도 다른 하나의 엔진으로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엔진 제작 기술이 발전해 운전 중에 엔진이 정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사라졌다. 이는 단발기인 F-16과 쌍발기인 F/A-18의 사고율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단발기인 F-16은 F/A-18보다 결코 사고율이 높지 않다.” 엔진 · 항공기술의 발달로 80년대 중반 이후 단발기와 쌍발기 간의 안전성 차이는 사라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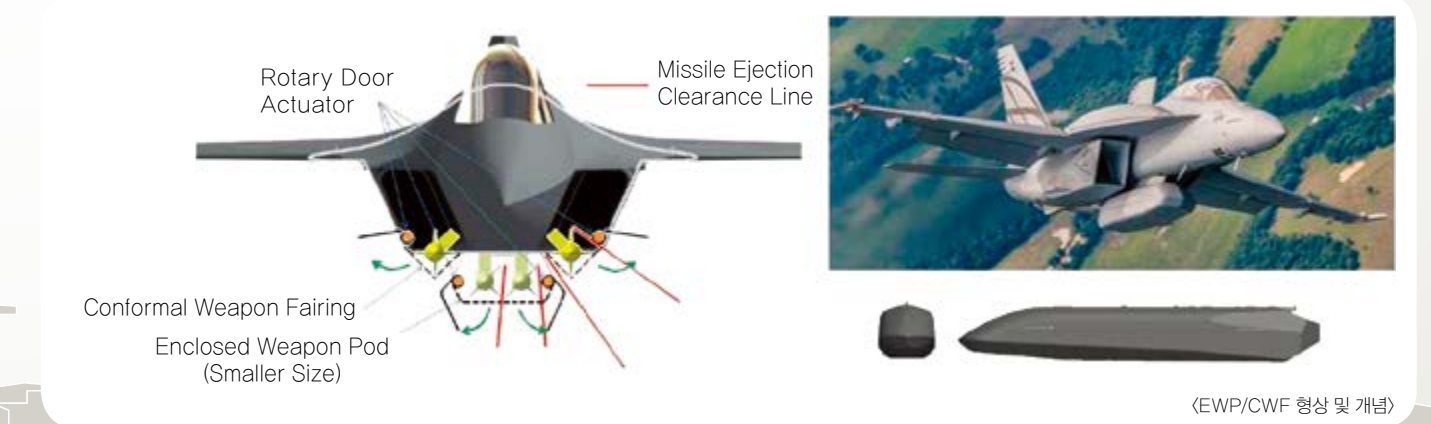


### Q4 KF-X는 향후 스텔스기로 발전할 것인가?

단발형상과 쌍발형상은 모두 향후 저피탐(Low Observable) 기술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스텔스 외형을 반영하고 스텔스 도료 등 국내 스텔스 기술발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쌍발형상은 내부무장장이 적용되어 무장에 의한 피탐지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항공기 크기가 커져 전체 피탐지 면적이 증대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단발형상은 쌍발형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체 피탐지 면적이 작으나 외부무장 장착으로 인해 피탐지 성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발형상 개발 결정 시 EWP(Enclosed Weapon Bay) 또는 CWF(Conformal Weapon Fairing) 등으로 보완하여 쌍발형상과 유사 수준의 저피탐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F-X 개발 형상과 관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공군 등이 참여하는 T/F가 구성되어 논의를 진행 중이다. K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열망하는 많은 이들도 논의에 동참하여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독자모델 전투기를 확보하여 우리 영공을 수호하고 자주국방력을 높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바람이다. 사업과 관련된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 개발되는 Medium급 전투기로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의 본격 전투기 개발국 진입을 원치 않는 선진국의 견제(기술이전 등)도 예상된다. KF-X 사업은 B안이 없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 절명의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어떤 형상으로 결정되든 사업 성공을 위해 KF-X 사업에 많은 격려와 힘찬 성원을 보내주길 기대한다. ⊕



## 변화에 성공하려면 '용기'를 품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말처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시도할 용기이며, 삶의 변화이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 또다시 찾아왔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 변화를 두려워하는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당신에게 진짜 변화가 필요한 한 가지 이유는 인생의 후반부를 좀 더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의 당신의 삶이 뜨겁지 않다면, 재미가 없다면, 가슴 설레지 않다면 그 삶은 잘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소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잘 살아야 한다.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중요한 것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이다.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위에 오르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못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제와 다른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다. 어제는 상상도 못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제와 별 반 다를 바 없는 삶을 매일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저 살아가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다.

어제와 다른 삶을 평생 추구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변화를 추구했고, 그저 살아가는 삶을 경계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중년인, 열정이 사그라지고 변화를 무서워할 수 있는 40대에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다. 위대한 소설 '레미제라블'을 집필한 빅토르 위고가 그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이 44세였다. 평범한 증권거래소 직원에 불과했던 빈센트 반 고흐가 화가로의 변화를 추구했던 것도 그의 나이 43세 때의 일이다. 신문기자 출신이었던 이안 플레밍이 첩보영화의 기념비적인 영화이며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한 스파이 영화인 '007 시리즈'를 쓰기 시작한 것도 인생의 중년인 41세 때였다. 더불어 변화를 추구했기에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도 많다. 신비주의 작가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로는 10대와 20대에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하기도 했고 30대에는 반정부 활동으로 감옥에도 수감된 적도 있다. 이후 극작가 및 연극연출가로 활동하던 그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순례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세계 168개국 73개 언어로 번역되어 총 1억3천500만 부가 넘게 팔린 '연금술사'라는 책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20대와 30대를 실패와 시련과 방황 속에 살았던 심리학 박사 존 그레이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자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이적인 베스트셀러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세계적인 시인인 마야 안젤루가 여러 가지 직업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제와 다른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이다.  
어제는 상상도 못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전전하다가 좌절해 자신의 삶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국의 르네상스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위대한 시인을 만나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던 샘 윌튼이 그의 나이 44세에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월마트'라는 세계적인 마트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이 하나같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위대한 인생은 고사하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만을 살아갔을 것이다. 변화를 추구한 덕분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명심하자. 인생은 한 번 뿐이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흘러 보내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변화를 추구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잘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시도하고, 당신이 꿈꾸는 무엇이든 시작하라. 담대함에는 천재성과 마법과 힘이 존재한다.” 괴테의 이 말을 통해 용기를 얻기를 바란다.

그렇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당신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변화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도 최대의 문학자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상은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모든 것은 행동에 달려 있다. 아무리 수준 높은 계획과 비전을 세운다고 해도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몽상가에 불과하다.

**작은 실천과 행동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변화는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좀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며 작은 행동이다.

태산을 오르고자 하는 사람도 결국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야만 높은 태산도 오를 수 있게 된다. 꿈과 목표만 거창한 사람보다는 작은 발 걸음을 한 번이라도 더 내디디는 자가 더 잘 이룰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일 것이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늘 얻던 것밖에 얻지 못한다. 늘 하던 대로 살면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별 볼 일 없는 삶밖에 살지 못한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것,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더 배우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살기 위해서, 즉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당신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잘 살기 위해서, 즉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일 것이다.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은 그 어떤 미덕보다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고 해도, 결국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거대한 변화는 작은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오늘 하루, 일상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진리인 것이다. 거대한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어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해보라. 그것이 비록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나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세상을 바꾸길 원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꾸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지 않고, 너무 큰 것만 희망하기 때문이다.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에도 마찬가지다. 하루를 살면서 작은 실천을 해보자. 10분 동안의 운동도 좋다. 10분 동안의 독서도 좋다. 10분 동안의 작은 명상도 좋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낯설고 어색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좋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축적이 되면 거대한 태산과 같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대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짐 콜린스는 ‘결정을 미루고 좋은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이라는 것이다.

자기 변화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지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려야 한다.⊕

하루를 살면서 작은 실천을 해보자.  
작은 실천이 모여서 축적이 되면  
거대한 태산과 같은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대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나침반과 지도가 필요하듯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성공을 위한 첫걸음, 자기 변화에 도전해보자.



행동이 없는 비전은 단지 꿈일 뿐이다.  
비전이 없는 행동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행동이 있는 비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조엘 바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무언가를 바꾸고자 노력하지 않는 이들의 미래는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더불어 변화를 두려워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빛의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필수요건이다. 영원한 1등은 없다. 과거의 결과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른다면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실천하라

자기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생각과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꼭 거창한 변화 일 필요는 없다. 작고 사소한 것, 쉬운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변화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차근차근 변화에 도전하다보면 어느 순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자기 변화를 완성하려면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다.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이룰 것인지 생각해보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미래를 상상해보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으며 생각하다보면 스스로에게 변화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욕에 차 목표를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만 주변 상황에 의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누군가에 의한 변화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다. 그런 만큼 신념과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꿈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가슴 속에만 담아 두는 열정은 필요 없다. 모든 성공의 첫걸음은 바로 실천이다. 지금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변화와 혁신에 도전해보자.⊕

###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노하우

#### •변화의 계기를 명확히 정하라

내가 왜 변화해야 하는지 절실한 동기와 이유를 최대한 끌어낸다.  
 더불어 '삼일절부터, 셋째주 월요일부터' 등 실행할 날짜를 명확히 해 변화의 의지를 다지는 것도 좋다.

#### •목표와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라

목표에 대해 언제 이룰지, 변화로 얻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실행할 계획 역시 장기, 중기, 일일 등으로 나누어 세분화하면 그만큼 목표 달성이 수월해진다. 책읽기라면 한 달에 1권보다 하루에 10쪽으로 구체화하면 부담도 적고 성공률도 높다.

#### •반드시 실천 여부를 확인하라

자신이 세운 목표 달성에 대한 개인일지를 준비한다. 잘했다, 못했다, 중간 등 실행결과를 매일 체크하는 자기평가는 가장 강력한 실행도구다. 결심한 대로 이루지 못했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 •나의 결심을 주변에 공표하라

자신의 변화를 지지해줄 응원단과 감시자 또는 함께 실행할 동지를 만든다. 혼자서는 벅차지만 여럿이 함께 하면 힘을 얻을 수 있다. 서로의 실천 진도와 과정을 공유하고 이끌어주는 코치가 되어줄 수 있다.



### 변화에 불을 지피는 9가지 자기 선언

1.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겠다.
2.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3. 나는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4. 나는 매일 매일 일의 진척사항을 점검하겠다.
5. 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최고일 때까지 행동하겠다.
6.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
7. 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있는 힘을 다하겠다.
8.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9.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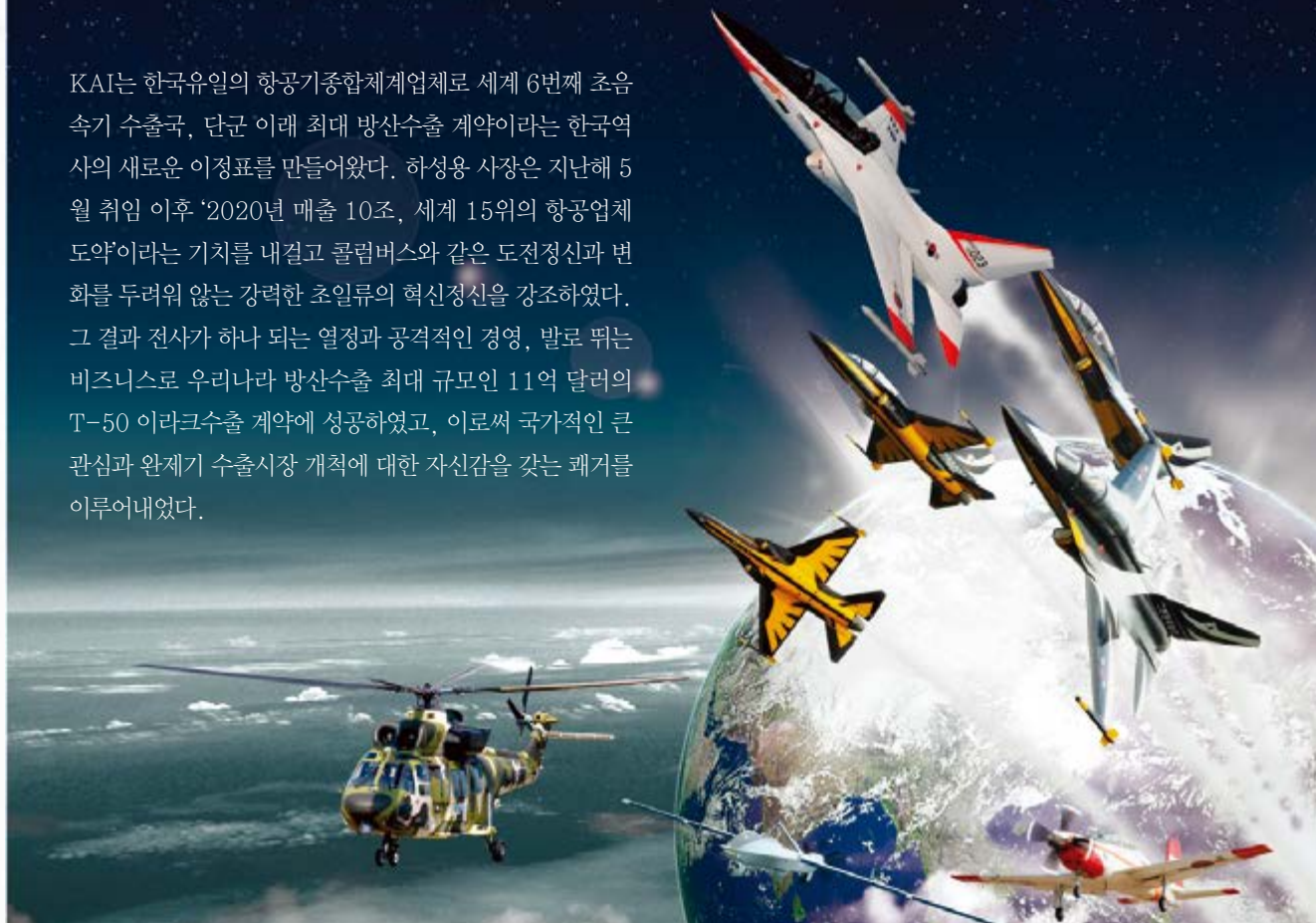


#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 지금 바로 그 때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도 많은 순간 좌절하고 고민하면서도 원대한 희망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역사에 남을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남은 일생동안 설당물만 팔면서 살 겁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꿔놓을 기회를 갖고 싶습니까?" 애플 설립 초기, 펩시 CEO 마케팅 천재 '존 스컬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다른 창의력과 신념으로 도전하고 변화해야만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AI는 한국유일의 항공기종합체계업체로 세계 6번째 초음속기 수출국, 단군 이래 최대 방산수출 계약이라는 한국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왔다. 하성용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2020년 매출 10조, 세계 15위의 항공업체 도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콜럼버스와 같은 도전정신과 변화를 두려워 않는 강력한 초일류의 혁신정신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전사가 하나 되는 열정과 공격적인 경영, 발로 뛰는 비즈니스로 우리나라 방산수출 최대 규모인 11억 달러의 T-50 이라크수출 계약에 성공하였고, 이로써 국가적인 큰 관심과 완제기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쾌거를 이루어내었다.

이제는 퓨처마킹의 시대다. 지금까지는 석유 등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잘사는 나라에 속하였지만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미래시대에는 변화를 선동하거나 빠르게 적응하는 혁신을 통하여 교육, 기업, 국가경쟁력이 앞선 나라가 부유한 국가 대열에 올라설 것이다.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산업은 고효율/저비용으로 업체간의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2014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KAI는 KF-X사업, LAH/LCH사업, 민수수주 확대, 신사업 다각화 등 새로운 도전과 변화로 세상을 바꾸어 나갈 것이다.



KAI의 '콜럼버스'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 않는 임직원의 불굴의 의지와 한마음 한 뜻으로 일궈가는 경영혁신활동이다.



지난 1월 진행될 전사 킥오프(Kick-off)행사.

## 한마음 한 뜻으로 일궈가는 KAI 경영혁신활동

2014년은 KAI가 내세운 'Vision 2020, 매출 10조' 목표달성의 원년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예산반영에 이어 사업화를 목표로 KAI의 2014 경영혁신활동의 주요 방향이 수립되었다. 회사의 경영성과와 직결되는 Top-down 혁신과제의 선정, 임원중심의 출선수법하는 혁신 추진력 확보로 성과실현 중심의 '전사혁신과제'를 실천할 것이다. 특히 전사혁신과제는 주요 부문별 본부장을 챔피언으로 하여 혁신전문가 MBB의 T/F 리딩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 아래 총 5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T-50, 수리온 등의 수출경쟁력 확보 및 KF-X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적 매출 성장을 위하여 Process/People 관점의 연구개발부문 혁신과제, Product 혁신을 통한 민수사업 및 수출기 원가혁신과제, 체질강화 측면의 생산성과 관리체계 개선과제, 직무분석을 통한 내부경쟁력 개선과제 등이다.

지난 1월에는 하성용 사장 주관으로 전사 킥오프(Kick-off)행사가 진행됐다. 혁신 킥오프(Kick-off)는 2014년 혁신활동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중요한 회의로, 이후 매월 추진방향과 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을 공유하며 관련 본부간의 협업을 확대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나간다.

시스템(BSC, 과제관리) 지원에 의한 강한 실행력과 철저한 성과평가로 과제가 완료되는 KAI의 경영혁신활동은 낭비제거, 효율향상, 원가절감 등 3P(People, Product, Process) 개선을 기본 목표로 한다. 경영 현안의 적기에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혁신 인프라를 개선 확충하여 전략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중장기 비전목표에 다가가는 획기적인 디딤돌이 될 것이다.

2013년 KAI는 처음으로 '올해를 빛낸 CEO 50인'에 18위에 랭크됐다. 매출증가 및 경영실적의 재무부문평가 외에도 비재무 부문의 혁신경영을 높게 평가받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콜럼버스와 같은 불굴의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불모지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KAI. 초일류 국가발전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그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KAI의 혁신전문가 MBB.





Zoom in KAI

글 오성근(전략홍보팀 과장)

사진 오성근, 공군제공

Singapore Airshow 2014

# 블랙이글

## 세계의 하늘에 대한민국을 그리다

영국 판보로,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 이어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에어쇼가 지난 2월 11일부터 16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 인근 Changi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되었다. 싱가포르 에어쇼의 생생한 현장과 지난 2월 초부터 진행된 블랙이글팀의 페리비행 여정을 소개한다.

50개국 900여 개의 세계 유수의 항공우주기업이 전시에 참여한 2014 싱가포르 에어쇼는 아시아 최대 에어쇼라는 이름에 걸맞게 134개국 4만4천여 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KAI는 에어쇼 기간 동안 전시관 내 홍보부스와 고객 응대를 위한 살레를 마련하고 완제기 수출 및 기체부품, MRO 사업 등 기존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이 공식 초청되었다. 에어쇼 개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한 블랙이글팀의 비행은 지난 2012년 7월 영국 와딩턴, 리아트 에어쇼에 이어 T-50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블랙이글팀은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도를 출발 1박 2일 일정으로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3개국을 경유해 총 5400여km의 거리를 직접 페리비행으로 날아왔다. 블랙이글의 페리비행은 KAI를 비롯해 공군, 방위사업청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에어쇼에는 하성용 KAI 사장을 비롯해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등 각 기관의 장이 직접 참여하여 블랙이글팀을 격려하고 국산항공기 수출을 위한 민·관·군 협력 공동마케팅을 펼쳤다.



### 1 블랙이글, 아시아의 하늘길을 열다

항공기를 분해해서 운송했던 이전과 달리 처음으로 페리비행을 이동한 블랙이글팀. 인도네시아 수출기 T-50i 페리비행으로 경험을 축적한 KAI의 지원과 공군 지원인력 60여 명, C-130 수송기 3대가 동원되어 페리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 2 또 한 번의 감동을 새기다

2012년 7월 영국 와딩턴, 리아트 에어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감동을 선사한 블랙이글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문양 퍼포먼스를 포함해 총 15개의 기동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아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또 한 번의 감동을 새겼다.

### 3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다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여한 총 8개의 에어로바틱팀 중 편대 참여팀은 싱가포르의 블랙나이트, 인도네시아의 슈퍼터, 대한민국의 블랙이글 등 3개팀. 이 중 슈퍼터팀은 KAI가 개발한 KT-1을 운용하고 있어 싱가포르 하늘에 국내 개발 항공기 두 개의 기종이 동시에 에어쇼를 펼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블랙이글팀과 슈퍼터팀의 화려한 공연을 통해 T-50과 KT-1의 안정성과 비행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고 수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4 KAI, 더 넓고 강해지다

우리 회사는 이번 에어쇼 기간 동안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하성용 사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했다. 전 세계 항공산업 및 군 관계자들에게 완제기 수출 및 기체부품, MRO 사업 등 기존사업을 소개함과 동시에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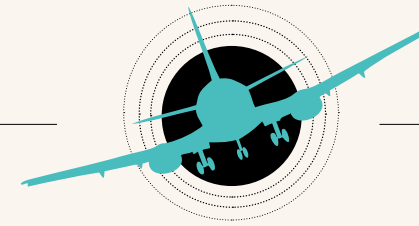




항공업계 뉴스

글 편집부

# 새로운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세계의 항공산업



**항공산업 국가산단 사전·진주에 조성해야**  
국가핵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 국가산단단지 조성은 지역 간의 경쟁시각이 아닌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항공클러스터가 잘 구축된 사전과 진주에 조성하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월 6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종실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국가산단단지 지정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항공산업 전망과 육성 과제'라는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위원은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미래산업인 항공산업은 사전 소재 KAI를 중심으로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또한 인력수급이 가능해 조속한 항공산업 국가산단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항공기 제작수요가 2031년까지 3만4000여 대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간 260억 유로 축내는 EU방위산업**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EU방위산업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U국가들이 자국 방위산업을 보호하려는 욕심에 하나로 합치지 못해 연간 최소 260억 유로(약 37조6487억원)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EU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정치·경제·사회 통합을 꿈꾸고 있지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산은 예외다. 2010년 인도의 140억 유로 규모 전투기 구매 입찰에서 프랑스 전투기가 결정되어 경쟁을 벌인 독일과 스웨덴은 엄청난 돈만 낭비하고 말았다.

EU는 국가별로 유로파이터·라팔·그리펜을 개발해 미국 F-35 개발비보다 많은 102억3000만 유로를 투입했지만 F-35 1,800대에 못 미치는 1,205대 전투기 확보에 그쳤다. EU가 방산을 공유할 경우 탄약 비용만 2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다.

**라팔 주력 전투기로 저울질하는 캐나다**  
캐나다 공군 차기 주력 전투기 선정에 프랑스 다소사가 '라팔'을 제안하고 나서 정부가 이를 검토 중이라고 CBC방송이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방송은 다소사가 최근 유지비용을 크게 낮추고 무제한적인 기술이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라팔 판매를 캐나다 정부에 제안, 정부가 구매가격 절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소사는 라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 이전할 것임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캐나다는 차기 기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F-35 6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지난 2012년 구매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 현재 캐나다 공군 주력 기종은 CF-18 호넷으로 오는 2020년 퇴역, 새 기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사우디, 파키스탄 JF-17 구매 검토**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전투기 구매와 개발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 도쿄의 외교안보 전문매체인 '더 디플로매트'는 지난 1월 24일 사우디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개발한 JF-17 '썬더'(중국어명 FC-1) 구매에 관심이 있다고 미국 온라인 신문 '월드 트리뷴'을 인용해 보도했다. 2007년부터 실전배치된 JF-17은 미국의 F-16이 차지한 시장을 잠식할 경쟁력을 갖춘 저렴한 단발엔진 경전투기다. 월드 트리뷴은 국적을 밝히지 않은 채 관료들의 말이라며 사우디 국방부와 공군은 사우디와 파키스탄과 협력관계의 일부로 JF-17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트너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주요 무기체계를 미국 방산 기술에 의존해온 사우디의 전략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더 디플로매트는 평가했다.

**카타르항공, '드림라이너' 싱가포르 에어쇼 첫 선**

카타르항공의 보잉 787 드림라이너의 내외부 모습이 공개됐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싱가포르 창이박람회장에서 열린 '2014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에 카타르항공의 차세대 여객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잉 787은 동체에 탄소섬유소재 적용하고, 연비효율을 크게 개선해 '꿈의 여객기'라는 뜻의 '드림라이너'라고 불리는 항공기다. 카타르항공이 최초로 선보인 보잉 787기는 최첨단 기술과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승객의 관점에서 제작된 첫 번째 항공기로 보다 수준 높은 5성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넓은 좌석은 물론 기내의 자동공기순환 시스템과 버튼으로 빛 명암을 조절하는 전자동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또 세계 최초로 전 객실에 무선 시스템을 갖춰 승객들이 비행 중에도 WiFi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평화연구소, 세계 방산업체 순위 공개**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1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12 세계 100대 방산업체 순위'를 통해 2012년 100대 방산업체의 무기 판매액은 395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대비 4.2% 감소한 결과이자 2년 연속 판매액이 줄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100대 기업의 판매액이 줄긴 했지만 2012년 집계액은 2003년에 비해 29% 증가했으며 매출 감소가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위 10대 기업으로는 1위 록히드 마틴, 2위 보잉, 3위 BAE시스템, 4위 레이시온, 5위 제네럴 다이내믹스, 6위 노드름 그루먼, 7위 EADS, 8위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9위 핀메카니카, 10위 L-3 커뮤니케이션즈로 BAE시스템즈(영국)와 핀메카니카(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전부 미국 기업이다. 10대 기업 중 2011년 대비 판매액이 늘어난 기업은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 뿐이었다. 📈





콘베어 R3Y 트레이드윈드

## 엔진 신뢰성 부족으로 개발 중단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해상초계 작전을 성공하는 것을 본 미 해군은 장거리 해상초계 임무비행을 시도하며 육상기보다는 비행정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어 마침내 초대형 비행정인 콘베어 P5Y/R3Y 트레이드윈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의 신뢰성이 부족한 관계로 단기간 사용에 그치고 모든 기체의 비행이 중지되고 말았다.

2차 대전을 치르며 독일 해군 잠수함의 위협에 직면했던 영국은 동원 가능한 모든 항공기를 바다로 출격시켜 해상초계 작전을 벌이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디젤엔진 잠수함은 평소에는 수면 위로 향해하면서 엔진을 가동시켜 축전지를 충전하였다가 필요할 때만 잠수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점에 착안한 영국 공군은 레이더를 탑재한 해상초계기를 동원하여 항해 중인 독일 해군의 잠수함을 찾아낸 다음 공격을 가하여 전과를 올렸다. 당시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레이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 공군의 해상초계기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미 해군 역시 장거리 해상초계 임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해상초계기를 개발하여 실전에 투입하였으며 특히 해상비행 중의 안전을 고려하여 대형 비행정을 주력으로 운영하였다. 대형 비행정은 큰 동체와 주익에 연료와 무장을 충분히 싣고 비행할 수 있었으며

장시간 비행에 지친 승무원을 위한 휴식공간도 충분하였다. 미 해군의 대형 비행정은 해상초계 임무 이외에도 조난자 구조와 연락수송 임무에도 활약하였다.

이전에 사용하던 비행정보다 더 큰 비행정을 요구하는 미 해군에게 콘베어(Convair) 기술팀은 새롭게 등장한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 해상초계 비행정을 제안하였다. 이에 미 해군은 1946년 5월에 시제기 2대를 발주하였고, XP5Y-1이라는 명칭으로 개발한 신형 해상초계 비행정이 탄생하였다.

1950년 4월에 미국 샌디에고 해안에서 초도비행에 성공한 XP5Y-1은 같은 해 8월에는 8시간 6분이라는 장시간 체공능력 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다음 장거리 해상초계기의 필요성이 줄어들자, 미 해군은 해상초계기 모델의 개발을 중단하고 병력과 화물을 탑재하는 수송기로 개발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하였다.



### 병력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비행정

수송기형으로 개발한 R3Y 트레이드윈드(Tradewind) 비행정은 1954년 2월에 초도비행에 성공하였다. 5,100마력을 낼 수 있는 T40 터보프롭 엔진의 출력에 힘입어 103명의 병력이나 92명의 환자 또는 24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었으며, 대형 화물실은 여압은 물론이고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었다.

또한 화물수송 이외에 공중급유 임무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는데 실제로 동시에 4대의 전투기에 공중급유하는 테스트에 통과하기도 했다. 한편 개량형인 R3Y-2의 경우 기수 부분에 대형 램프를 설치하여 병력은 물론이고 중장비까지 직접 해안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그러나 1958년에 미 해군은 돌연 모든 P5Y 및 R3Y 비행정에 대하여 비행중지 조치를 취하였다. 2차례의 추락사고를 일으켰던 P5Y와 R3Y 비행정에 탑재한 엘리스 T40 터보프롭 엔진의 신뢰성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다. 미 해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때까지 비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1950년대 당시에 터보프롭 엔진은 아직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엔진으로 문제점을 완벽하게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콘베어 P5Y/R3Y 비행정은 불과 13대를 마지막으로 생산과 비행을 모두 중지하게 되었다.

하늘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시간 비행에 있어 엔진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항공기를 개발할 때 신뢰성 있는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에듀 플러스

정리 이경숙

자료제공 KAI 에비이션 캠프

KAI와 함께 하는 재미난 항공우주과학 이야기

# 자동차에 숨은 항공기술 HUD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들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기판에 있는 각종 정보를 보기 위해 수시로 고개를 돌리곤 한다. 자동차보다 더 복잡한 계기판을 가진 항공기의 조종사들도 마찬가지인데, 긴박한 상황에서라면 이런 찰나의 순간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조종사의 전방시야 확보를 위해 개발되어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Head Up Display(이하 HUD)에 대해 알아보자.

파워 슈트를 입고 악당과 싸우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아이언맨. 홀로그램 프로젝트가 부착된 HUD 헬멧을 쓴 주인공의 눈앞에 다양한 수치와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진다. 영화 아이언맨에 수시로 등장하는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최첨단 광학시스템인 HUD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파일럿의 시야 확보를 위해 탄생한 기술

과거 HUD가 없던 시절에는 전투기 조종석 전면에 전투를 목적으로 장착된 조준경(가늀좌) 정도만 있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운항 중에 조종석 하단 또는 좌우측의 복잡한 계기판을 통해 속도, 고도, 향로 등 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파악하느라 고개를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이렇게 좁은 전투기 안에서 머리의 각도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파일럿의 편의를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HUD 기술이다.

HUD 시스템은 조종사가 외부 물체 또는 바깥세상을 관찰하면서, 조종석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계기판과 사격 조준판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조종사의 시야에 갖가지 정보를 시현해준다. 항공기의 정보를 실시간 조종석 전면에 디스플레이해주고 깜빡한 야간에 도지형지물을 투시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항공기는 물론 최첨단 전투기에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F-16에 장착된 HUD



민항기에 적용된 HUD

### 렌즈와 레이저를 이용한 Head Up Display

HUD 시스템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HUD 시스템은 조종사가 비행하는 동안 시야를 확보하면서 각종 계기의 상황을 동시에 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 시 조종사의 반응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줄여 피곤함을 덜어 준다.

HUD 시스템을 구현하는 원리는 굴절식(Conventional)과 회절식(Holographic)이 있다. 먼저 굴절식은 소형 모니터(CRT)위에 대형 렌즈를 놓고 그 광선을 굴절시킨 화면이 다시 투명판에 반사되는 구조이다. 조종사의 전방 시야는 유지되면서 심볼을 비롯한 각종 정보가 투명판에 반사되면서 나타난다.

CRT로부터 나온 광선은 상이 형성되는 지점을 반사판 각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 대형 렌즈에 의해 굴절된다. 왜냐하면 CRT는 수평으로 있고 그 위에 반사판이 경사져 있기 때문에 거리가 동일하지가 못해, 그냥 반사시키면 가까운 쪽은 작게, 먼 쪽은 길게 상이 맺히고 초점도 다 달라서 흐릿하게 보이게 된다. 이것을 균일하게 하여 상을 선명하게 시현하기 위해 두꺼운 렌즈를 사용한다. 굴절된 빛은 대형 렌즈의 유리면과 공기층을 번갈아 통과할 때 매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굴절도가 변화하는데, 이것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초점을 맞추고 크기도 균일하게 맞춰 심볼의 왜곡현상을 없앤다.

회절식 HUD 시스템은 굴절식 HUD 시스템에서 렌즈의 역할을 레이저가 대신하는 방식이다. 홀로그램(Hologram)에 의해 빛의 회절을 조절하여 반사판에 상이 맺히도록 한다. 이는 밝기가 굴절식보다 밝고, 넓은 면적을 커버하며 무게도 가볍다는 장점을 갖는다.

### 항공기의 기술을 접목하여 진화하는 자동차

HUD는 공군 전투기 또는 민간 항공기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진화하여 운전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자동차의 전방 유리창에 속도, 위치 등 차량 상태를 나타내고 앞차와의 간격 등 위험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보여 주기도 한다. 운전자가 전면 유리창을 통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야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의 모든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사고율을 낮출 수 있게 됐다.⊕

# HUD

Head Up Display



HU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어울림 KAI

글 이경숙  
사진 임익순



(주)포렉스 정해영 대표이사

(주)포렉스 정해영 대표이사

# 목표를 위해 함께 전진하는

# 동반협력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항공기 하나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의 종류는 수백에서 수천 가지에 이른다. 그 수많은 부품을 한 곳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기에 다양한 협력업체가 함께 상생하며 임무를 수행해 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형 정밀가공부품 담당하는 협력업체로 KAI의 협력업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포렉스 정해영 대표이사를 만났다.

### Q1 포렉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포렉스는 항공기 부품 중 초정밀 기계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외 주요 민항기 및 군용기에 소요되는 항공기 핵심동체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KAI의 1차 협력업체로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63명의 임직원들이 KAI와 함께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2007년 AS9100, ISO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 지난해 약 6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가공분야에서 국내 최대의 정밀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미래도움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Q2 주요 생산 제품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개발한 초음속 훈련기 T-50, FA-50, 군용헬기인 KUH 등을 비롯해 민항기인 보잉과 에어버스사 등 KAI에서 납품하는 대부분의 항공기에 장착되는 정밀기계 가공부품을 생산하고 관련 치공구를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보잉 B737, B747, B787과 에어버스 A321, A350의 엔진과 날개를 부착할 때 고정시켜주는 피팅(Fitting)과 날개에 장착되는 윈스킨(Wing Skin)과 보강재(스티프너, Stiffener) 등을 제작합니다. 특히 B777 Engine Fitting 등 단단하고 가공이 까다로운 항공기용 대형 난삭제 가공부품의 생산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 Q3 KAI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인가요?

저에게 KAI는 영원한 친구 같은 곳입니다. 1981년 대우중공업으로 입사하여 1984년부터 KAI의 전신인 항공산업본부에서 근무한 이후 20여 년이 넘게 항공산업에 몸담아 왔습니다. 2005년 퇴직 직전까지 KAI 창원공장 부품생산총괄 책임자로 업무를 수행했었죠. 그 후 좀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자 포렉스를 창업하며 KAI와의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영원한 친구이자 때론 앞에서 이끌어주는 모기업인 KAI가 글로벌 항공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는 협력업체로 오랫동안 함께 하고자 합니다.



### Q4 KAI의 동반성장 협력업체로 역할을 꼽는다면?

KAI 협력업체 육성은 생산특성별로 전문화 계열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의 KAI의 협력업체 육성방향은 Turn Key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협력업체규모를 보다 대형화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KAI 협력업체협의회 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포렉스는 KAI의 협력업체 중 정밀가공부품 전문업체로 KAI 항공기 생산의 원가절감 및 기술경쟁력에 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KAI의 협력업체가 구성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모기업인 KAI와 협력업체가 동반성장하여 KAI의 2020년 매출 10조 달성을 물론 정부의 '항공산업 생산액 200억불, 수출 100억불, G7 도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죠. KAI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모기업의 동반자적인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KAI의 1차 협력업체로 기술적 경쟁력을 더욱 발전시켜 모기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달성에 힘을 주는 최고의 협력업체가 되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Q5 2014년 목표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2014년에는 80억원을 매출목표로 잡았으며 KAI의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포렉스 역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 비해 대형 부품을 다루다 보니 장비 역시 대형기계들이 많은데, 창원공장에서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진주 정촌산업단지 제2공장을 준공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AI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창원의 4~5배 정도 규모라서 향후 KAI의 Turk Key Base 외주사업화에 대한 대비는 물론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성이 높으리라 기대합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제2공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AI의 동반성장 협력기업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 분야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포렉스,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참대하다'는 말처럼 KAI와 함께 더 큰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데 서로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  
으라차차 우리실

글 이경숙

사진 임익순

신규사업구매실

## 항공산업의 엔진 구매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반도체, 자동차산업 등과 비교할 수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렇기에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기업의 손익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KAI 창사 이래 가장 큰 두 가지 핵심 사업의 임무를 부여받은 신규사업구매실을 찾았다.

주부라면 누구나 주어진 비용 안에서 알뜰살뜰 살림을 꾸리기 위해 고민한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성능이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 인지를 꼼꼼히 비교하고, 같은 제품이라면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으려고 애쓰기 마련이다. 이러한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만 가정경제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규모는 다르지만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세세하게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가 존재한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이라면 최적의 재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사들여, 최상의 품질을 생산해내기 위해 체계적인 구매전략을 세워야 한다. 더욱이 기업의 도약과 발전에 전환점이 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구매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진다.

### 회사의 성장과 손익을 담당하는 막중한 책임

김충용 실장이 이끄는 신규사업구매실은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사업(이하 KF-X사업)과 국책사업인 소형헬기사업(이하 LAH/LCH사업)의 성공적인 개발을 목표로 지난 1월 전사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에서 KF-X사업과 LAH/LCH사업의 개발 추진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KAI에서도 KF-X와 LAH/LCH 2개의 사업추진본부를 각각 신설했고, 구매본부에서 두 개의 신규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신규사업구매실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구매팀은 회사를 운영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



김충용 실장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요비용의 50~60%에 이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회사의 미래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업인 KF-X사업과 LAH/LCH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최적의 구매 요구도를 만들고 최적의 공급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임무를 바로 신규사업구매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재나 부품 등을 구매하고 해당부서에 공급하는 모든 활동들을 담당한다. 회사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최적의 재료들을 적절한 비용으로 확보하여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무들을 통해 원가절감 등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중책을 가진 부서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소요비용의 50~60%에 이릅니다. 갈수록 회사의 성장, 매출과 손익에서 구매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요. 사장님도 평소 구매가 항공산업의 엔진이라 할 정도로 늘 구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회사의 미래라 할 만큼 중차대한 사업인 KF-X사업과 LAH/LCH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최적의 구매 요구도를 만들고 최적의 공급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임무를 바로 신규사업구매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구매실은 KF-X 구매관리팀(김경준 팀장)과 LAH/LCH 구매관리팀(정국진 팀장)으로 나뉘어 각각 3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실장과 더불어 두 팀장 모두 KAI 미국사무소에서 구매 주재원으로 활약한 전문가인데다, 팀원들도 관련 업무에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과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으로 구성되어 역량이 넘친다. 어깨는 무겁지만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는 신규사업구매실 팀원들의 모습에서 든직함이 느껴진다.







“과거 몇 년 동안 KF-X사업과 LAH/LCH사업에 대해 탐색개발, 선행연구, 국산화 및 직구매 조사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규사업구매실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들도 있지만 실 전체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그동안 해왔던 구매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역량을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신규사업의 현황을 비롯해 과거의 업무 등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중책사업을 위한 구매전략을 담당**

현재 KF-X사업과 LAH/LCH사업은 개발 추진 예산이 통과되었을 뿐 체계개발에 대한 계약은 올 연말 즈음으로 계획되어 있다.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만큼 신규사업구매실의 목표는 두 사업 모두 최종 체계개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이다. “현재 두 사업 모두 예산 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구매요구도를 만들어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항공기는 한 대를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생산 후 40~50년 이상을 운용하기 때문에 엔진을 비롯해 랜딩기어, 레이더, 전자장비 등 탑재장비, 무장장비 등의 성능이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장비들은 개발단계에서 세세하게 진행되지만 지금은 우선적으로 큰 기둥이 되는 장비들에 대한 구매전략을 세우는 시기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개발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흔히 항공기 1대 가격이 중형 자동차 1000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항공기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그도 그럴 것이 엔진, 레이더 등 장비 하나가 몇 억불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구매팀에서 어떤 제품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김 실장은 본격적으로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위해 주요 탑재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해외 직구매를 위해 신규 공급업체 및 전략적 협력업체를 발굴하는 것을 가장 선행할 업무로 꼽았다. 더불어 이를 위해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일,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와의 구매권 협의 등 신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매전략을 수립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두 가지 사업 모두 기존에 국내·해외구매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길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까지 진행했던 업무들이다.

“과거 몇 년 동안 KF-X사업과 LAH/LCH사업에 대해 탐색개발, 선행연구, 국산화 및 직구매 조사결과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규사업구매실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팀원들도 있지만 실 전체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그동안 해왔던 구매관련 정보를 파악하는데 역량을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신규사업의 현황을 비롯해 과거의 업무 등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항공기 개발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명품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와 군은 물론, 향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두 사업 모두 산업/기술파급 효과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의 초석이 되기에 신규사업구매실의 임무에 더 많은 역량이 실릴 것이다.

KAI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은 만큼 실 전체가 아침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팀워크를 다지고 있다는 신규사업구매실. 열정과 패기로 뽀푼 뽀푼 만큼 각오도 남다르다. “미래의 힘찬 비상을 책임지는 구매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김중용 실장을 비롯해, 김경준 KF-X 구매관리팀장과 정국진 LAH/LCH 구매관리팀장 역시 “일당 백을 넘어 일당 천이라는 자세로, 체계 개발 계약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KAI의 역사적인 도약이 될 KF-X와 LAH/LCH 사업의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릴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정국진 LAH/LCH 구매관리팀장



김경준 KF-X 구매관리팀장





KAI가 쓴다

글 이경숙

사진 임익순



구조시험팀 김기범 책임연구원

# 늘 처음처럼 사랑하며 살아요!

흔히 결혼 10년차가 넘으면 많은 부부들이 사랑보다는 의리 혹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결혼 16년차인데도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알콩달콩 연애의 설렘이 가득한 부부도 있다. 스스로 낭만파라고 자부하는 김기범 책임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



최근 한 부부상담 교육기관에서 전국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68%에 이르는 부부가 권태기를 느꼈다고 한다.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하고 사랑만으로도 배부르던 연애시절을 거쳐 결혼에 골인했지만 결혼생활은 일상의 연속이다. 연애할 때의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신없는 생활을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많은 부부들이 다름이나 무관심으로 빠져터져리곤 한다. 물론 주말부부들은 이런 결과에서 조금 예외적이기는 하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올해로 결혼 16년차에 접어든다는 구조시험팀 김기범 책임연구원과 아내 정수인 씨 역시 결혼생활 중 반 이상을 주말부부로 지냈다.

“결혼 후 KAI에 입사하면서 거의 10년을 광주와 사천을 오가는 주말부부로 지냈고, 온가족이 모이게 된 지는 이제 겨우 5년이 넘었어요. 둘 다 광주가 고향이고 아내가 오랫동안 거기에서 터를 잡았던

터라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죠.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아내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애뜻한 결혼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김기범 책임은 지금도 아내와 연애하는 기분으로 서로에게 밀고 당기기를 즐긴다고 덧붙인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즐겨하는 김 책임은 사내 게시판에 붙은 ‘KAI 쓴다’ 공지를 보고 ‘이거다!’하고 무릎을 쳤다.

“연애 시절에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종종 계획하던 낭만적인 남자였는데, 사는 게 바쁘다보니 시간도 없고 무언가를 계획할 여력도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제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했더니 당첨이 됐네요. 남편으로서 으쓱한 마음도 있고, 아내가 근무하는 사천시청에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 여전히 연애하는 기분으로 밀당하는 부부

한창 업무 중인 오후 시간, 두 손 가득 간식을 들고 아내가 근무하는 사천시청 세무과로 향했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미리 양해를 구해 두었던 터라 세무과장님을 비롯해 30여 명이 넘는 직원들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내가 사천시청에서 기간제로 개별주택 공시지가 평가 관련 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들 잘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벤트를 신청해두고 괜히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모두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

남편의 멋진 선물과 동료들의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인사를 받은 아내 정수인 씨의 입가에는 함박 미소가 걸렸다. 이제는 사천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멋진 남편을 둔 유부녀’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것 같다며 맘에 없는 걱정을 하는 아내를 바라보는 김 책임 역시 얼굴에 사랑이 가득하다.



“남편이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해서도 가끔 손 편지를 써서 이벤트를 하곤 했어요. 문득 결혼 1주년 무렵의 화이트데이가 기억나네요. 아는 사람 편에 뭘 보냈다고 집 앞에 나가 보라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집 주변을 한참동안 헤맸는데, 남편이 짠하고 등장해서 정말 깜짝 놀랐었죠. 평일 저녁이었는데 일부러 와서 선물을 건네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래 주말부부로 생활하기도 했고 미국 파견 때문에 몇 개월은 아예 떨어 지내기도 해서인지 아직도 약간 연애하는 기분이에요.”

“연애 시절에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도 종종 계획하던 낭만적인 남자였는데, 사는 게 바쁘다보니 시간도 없고 무언가를 계획할 여력도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제 마음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신청했더니 당첨이 됐네요. 남편으로서 으쓱한 마음도 있고, 아내가 근무하는 사천시청에 우리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 믿고 존경할 수 있는 든직한 남편

부부는 오래 살면 닮는다고 했던가. 유난히 웃는 모습이 닮은 김기범 책임 부부는 광주의 한 성당에서 교우로 처음 만나 2년 여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했다. 벌써 햇수로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부부의 모습에서 여전히 처음 연인이 되었던 그때의 설렘이 느껴진다.

“성당에서 교우로 만나면서 서로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프리포즈를 했더니 아내도 바로 받아주더라고요. 아내는 신세대 같으면서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 내려는 집념과 의지도 강하고요. 올해로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딸, 아들을 10년 넘게 일하면서 혼자 키우다시피 했죠. 그래서 늘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애정이 듬뿍 담긴 남편의 말에 아내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으로서의 점수는 90점’이라고 응수한다. 아이들과 유년시절을 함께 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항상 믿고 존경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었기에, 곳곳이 이겨낼 수 있었다고.

“살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서 남편은 늘 더 현명한 답을 제시해요. 제가 지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좀 털털한 편인데, 남편은 돌다리도 두드려볼 정도로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고, 저는 감성적인 반면 남편은 이성적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는 저와 달리 아이들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편이에요.”

성격은 서로 다른 편이지만 가치관이나 취향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김기범 책임 부부. 그래서인지 살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14년 서로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질문에 ‘아이들과 서로의 건강’을 첫 번째로 꼽는 두 사람. ‘늘 지금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충실하자’는 평범한 말 속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느껴진다.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은 김기범 책임 부부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대한다.☺



□□□-□□□

### 고마움과 사랑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평소 커피 한잔타 주는 것도 마치 선심 쓰듯, 어쩌다가 설거지라도 하는 날엔 엄청 대단한 이이라도 한 듯, 아이들 숙제라도 좀 봐주는 날엔 마치 부모노릇을 혼자 다 한 듯 너스레 떠는 그런 사람입니다. 26살 때 당신을 처음 만났고, 2년 간의 연애 후 벌써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군요.

새삼 당신이란 여인을 알게 된 것이 18년 전이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놀라움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살고 있음이었고, 미안함은 아마도 당신에게 남편으로서 든든한 위안이 되고 있질 못한다는 자책이겠지요. 당신을 만난 행운에 감사하며, 용기를 내서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아 내 사랑으로 만든 나 자신이 오늘따라 더욱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내를 참 제대로 선택한 듯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나 이렇게 행복한데 어찌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합니다.

남편 김기범 드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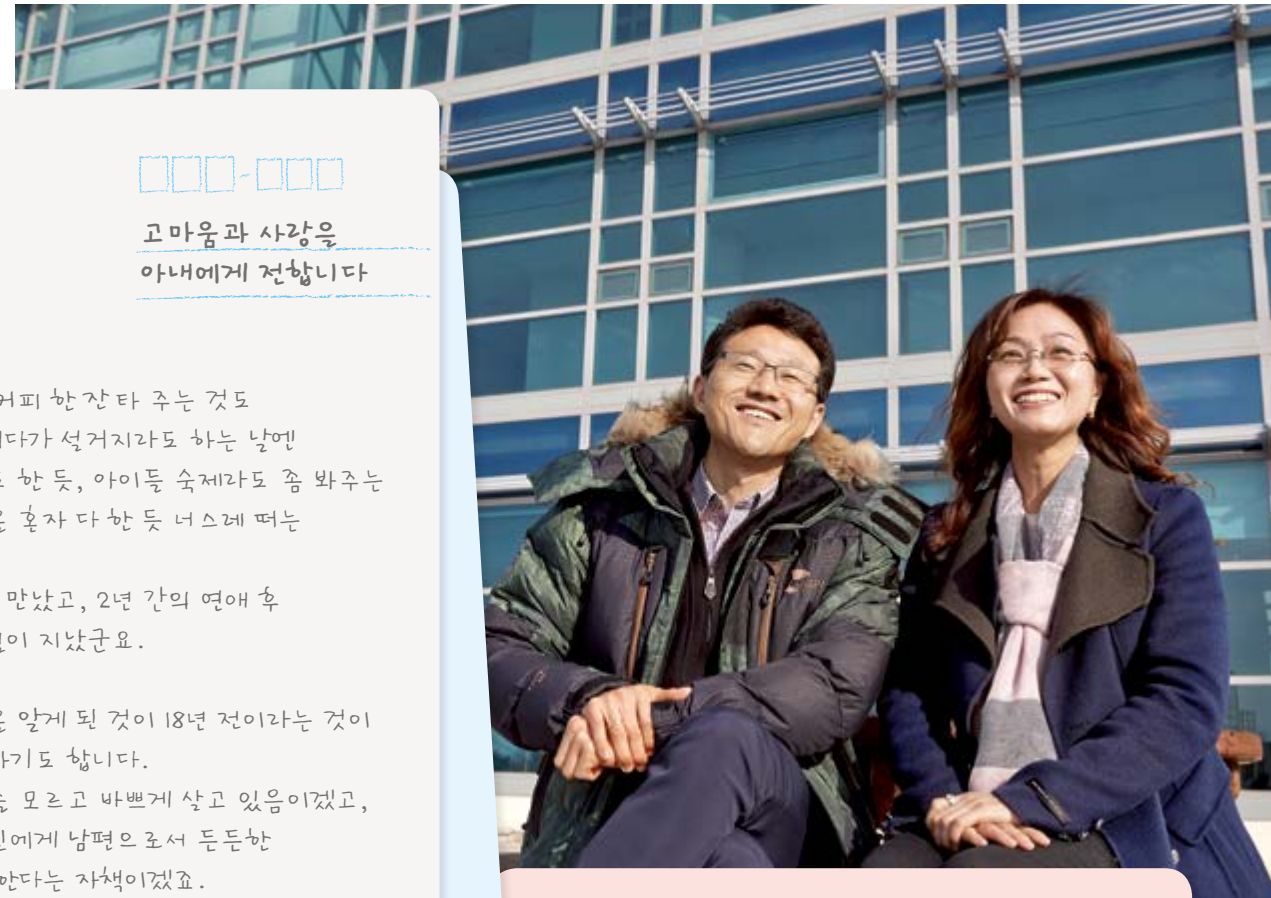
### 감사합니다 기범 씨 그리고 KAI

오랜만에 받아보는 이벤트에 감격했습니다. 저 뿐 아니라 사천시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35명 식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위 분들이 남편들에게 사랑스런 바가지줄 굶었다는 소식에 심심한 위로를 전해봅니다.

사랑하는 기범 씨 당신이 선사한 오늘의 공개적인 사랑 이벤트는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조금은 단조로운 인상이 한 순간에 경이로운 감사의 하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하고 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행복감이 가슴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멋진 이벤트를 준비해준 당신과 KAI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 정수인 드림.





# 미래가 더 기대되는 진정한 능력자들

무슨 일이 주어지든 열정과 노력의 에너지를 발휘해 성공을 쟁취하는 이들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부른다. 경험의 유무나 물리적인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있기에 지금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AI인들을 만났다.

고정익고객지원팀  
김철경  
수석기술원



## 추천명 행복과 사랑의 리더

“제가 먼저 후배들을 칭찬하고 챙겨야 하는데, 반대가 되었네요. 그래도 동료나 후배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KAI에서 생활한 지 21년째 접어들었는데, 직장생활과 개인의 삶은 자전거의 앞뒤바퀴 같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든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실히 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배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고 싶습니다.”

### 주어진 임무에 충실한 선배로 기억되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현장직장으로 근무한 김철경 수석은 수리온의 시제 개발과 초도 양산을 비롯해 경철청철헤기 개발사업 등의 임무를 20여 년간 수행해온 항공기 생산의 베테랑이다. 솔선수범하는 현장관리자로 후배들을 격려하며 항공기 생산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에 '행복과 사랑의 향기를 풍기는 리더'라는 명칭을 얻었다. 안전사고 없이 수리온 시제기와 초도양산기 생산을 완수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김 수석. 지난 조직개편으로 생산현장에서 물러나 앞으로는 항공기 운영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그가 현장에서 보여준 뜨거운 열정만큼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국산화협력2팀  
김학준 차장

## 추천명 살아 있는 전설의 바이어

“오랫동안 팀에서 막내로 생활한 탓에 카이피플로 추천받는 좋은 경험도 하게 되네요. 제대 후 복직해 어느새 입사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지만 짜증과 스트레스도 전파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다수의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다보니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기분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수리온 2차 양산이 시작되니 본업에 더욱 매진해야죠. 더불어 10년 만에 새로 들어온 후배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역할에도 충실할 것입니다.”

### 긍정의 힘을 전파하는 성실맨이 되겠습니다

김학준 차장은 수리온 양산과 관련하여 국산화 협력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KAI가 2006년 정부와 수리온 체계개발을 계약한 사업초기부터 지금까지 7년 넘게 참여해온 경험 덕분에 회전의 관련 국산화협력 분야의 '살아 있는 전설의 바이어(Buyer)'로 불린다. 김 차장은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 동료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또한 업무활동 전 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임하는 모습 역시 귀감이 되고 있다.



시설환경팀  
유승일 사우

## 추천명 에너지 지킴이

“이제 겨우 입사 2년차에 불과한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카이피플로 선정되어 얼떨떨하지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시설관리인 본업과는 조금 별개인 업무지만, 흥미와 관심이 있을 때 일의 능률이 높아진다고 믿기에 주어진 모든 일을 재미있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실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도 중요하지만 노력하는 과정 역시 그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면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오로 회사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 빛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 및 보안설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승일 사우는 '에너지 관리비용 절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앞장서 '에너지 지킴이'란 명칭을 얻었다. 친근감 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에너지 절감 게시문을 만들어 홍보한 덕분에 가시적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두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 카이캐스터 2기로도 활동하는 그는 게시문을 읽은 사우들이 직접 소감을 전하고 실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는 그의 뜨거운 열정과 젊은 패기에 박수를 보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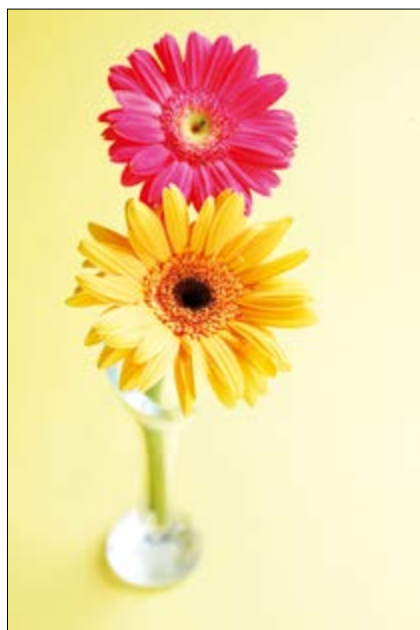


나는 멋진 남자? 아님 터프한 남자?

# 자신을 드러내는 온라인 콘텐츠 톤&매너 잡기

프롤로그 | 블로그 | 리뷰

지도 | 서재 | 메모 | 태안 | 안부



블로그를 개설하고 주제를 정했다면, 이제 사람들과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다. 사람마다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만의 말투와 버릇이 있듯이 온라인에서도 자신만의 톤과 매너를 갖고 있어야 한다. 좋은 모습으로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보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프롤로그 ▶ 쪽지 ▶ 이웃추가 ▶

## 누구와 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메인 타깃을 정한다

블로그를 개설하고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톤과 매너로 내 글을 읽는 사람들과 소통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때 톤&매너는 내 블로그가 타깃으로 삼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편한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이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깃 대상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10대인지, 30대인지에 따라 톤&매너는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서는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다수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문자를 존중하는 톤&매너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내 블로그라며 혼자서 거친 말이나 욕을 써 놓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글을 올린다면 당연히 그 블로그를 방문한 방문자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고, 다시는 그곳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브랜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너 왜 왔냐?” 보다는 “블로그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가 누구에게나 더 편하고 친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나 ‘~합니다’체를 사용하면 블로그 글을 읽는 사람도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껴 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것이다.

## 블로그의 톤은 현실의 자신과 가장 비슷한 말투가 좋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인양 꾸미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 온라인이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활동하면서 캐릭터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이 남자라도 온라인 게임 캐릭터가 여자일 경우 게임 상에서는 말투와 행동거지, 이야기들을 모두 여자처럼 변화시킨다.

그런데 SNS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다. SNS에서 대화를 하려면 친구나 팔로워를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의 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또한 프로필에서 자신을 잘 설명해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과 아는 사람들, 자신과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실의 자신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일부러 톤을 바꾸기 보다는 자신의 성별과 나이에 맞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다.

## 가볍고 경박한 글, 맞춤법 틀린 글은 피하자

블로그가 정한 타깃과 친해지겠다는 마음에 요즘 유행하는 은어와 약어를 사용해 블로그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블로그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그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해 못하는 표현이 잔뜩 써진 글 보다는 어린 아이가 읽어도, 어른이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글이 써진 블로그가 더 인기가 많다. 흔히 대중이 읽는 좋은 글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다. 신문도, 작가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쓴다. 즉, 이해하기 쉬우며 간결하게 풀어나가는 글 톤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블로그 글을 쓸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맞춤법이다. 온라인에서 신뢰를 받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오타와 맞춤법은 없는지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인 포브스에 실린 “성공을 막는 13가지 사소한 습관” 중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잘못된 맞춤법이었다. 잘못된 맞춤법은 단순히 오타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단어 사용이나 잘못된 문법까지 포함한다.

맞춤법이 틀렸다는 것은 해당 문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며, 그만큼 내용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준다. 글을 쓰는 사람도 신경을 덜 쓴 글을 기껏 찾아온 방문자가 가치있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블로그 글을 쓰고 난 후에는 발행하기 전에 꼭 다시 한 번 찬찬히 읽어보며 잘못된 표현이나 어색한 표현을 고치는 것이 좋다.

## 읽는 사람이 보기 좋게 편집하는 것도 매너다

우리가 잡지나 책을 읽을 때는 단정히 편집된 글을 접하기 때문에 내용을 읽는데 방해받지 않는다. 특히, 요즘 온라인 콘텐츠는 모바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은 화면에서 글을 읽어 내려가야 한다. 이때 글줄 사이의 간격이 넓고 띄어져 있으면 스크롤을 많이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얼마 보지 않고 다른 글을 찾기 쉽다. 또한 훌륭한 간격은 콘텐츠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그러므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한 문단이 3줄 이상 넘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글은 덩어리진 것이 읽기 편하므로 가운데 맞추기보다는 앞줄 맞추기나 양쪽 맞추기로 편집하는 것이 좋다. 문장도 마찬가지로 문장이 어색한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을 하나의 문장에 다 연결해버리기 때문이다. 한 문장이 두세 줄이 넘어가면 읽는 사람도 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 문장은 한줄 반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문장을 언제 종결해야할지 잘 모른다면, 직접 소리 내어 읽어보면 된다. 읽기에 숨겨진 문장이 긴 것이므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 댓글은 바로 답글을 달아 대화한다

블로그 운영하다보면 어떤 사람이 내 글을 읽을까, 어떤 사람이 내 글에 답글을 달까 궁금해한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한다.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블로그 주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다. 이들과 좋은 소통을 하는 것이 블로그의 영향력을 높이는 길이다. 댓글에 대한 답글은 24시간이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댓글을 단 사람도 자신이 남긴 댓글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답글을 달 때는 댓글을 단 사람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먼저 말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독장미님~ 댓글 주셔서 감사해요” 식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듯이 답글을 남기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불리면 부른 사람에게 친근함을 느끼고 개인적인 관계를 쌓은 것처럼 느껴진다.☺

### 블로그 글을 쓴 후 꼭 점검해 봐야 할 사항

- 톤&매너가 정리되어 있나요?
- 오타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리지는 않았나요?
- 글은 좌우정렬로 정리되어 있나요?
- 문단 구분이 잘 되어 있나요? 3~5줄을 한 문단으로 정리해주세요.
-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본 후, 너무 긴 문장은 짧게 끊어서 정리해주세요.





### 봄날

- 김용택

나 찾다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3월이 시작되면 섬진강 물줄기는 꽃향기를 실어 나르며 전국 방방곡곡에 봄이 왔음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김용택 시인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풀 한포기도 허투루 보지 않는 서정 시인으로 유명하다. <봄날>, <섬진강> 연작시 등을 통해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섬진강 시인'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따뜻한 봄이 되면 섬진강은 매화, 벚꽃, 진달래가 지천에 깔리며 어느새 꽃 세상으로 변한다. 감성이 메말랐던 이들의 마음도 녹일 만큼 촉촉한 감성의 단비를 내려준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노라면 온 몸 가득히 사랑살랑 부는 봄 향기가 채워지는 듯하다.

섬진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꽃과 매화가  
봄이 왔음을 알린다.

### 경상남도 하동

##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 곳

경남 하동은 한반도에서 가장 빠르게 봄소식을 전하는 곳 중에 하나다. 매화, 벚꽃 등 재철 꽃들이 서둘러 봄꽃을 터뜨리며 매섭게 몰아쳤던 동장군의 등을 떠민다. 또한 슬로시티로 농촌마을의 여유로움도 한껏 느낄 수 있다. 봄소식을 전하는 섬진강변으로 화사한 봄의 전령사들이 맞으러 떠나보자.



강원도 일대에 내린 폭설로 심란한 2월 중순이건만 섬진강에는 벌써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전북 백운산 자락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곳이다. 전북 임실, 순창, 남원, 곡성을 지나 구례, 광양, 하동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가는 이 강은 총 길이가 222km에 달하며, 그 강줄기는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를 모두 아우른다. 섬진강 주변은 3월 중순부터 봄꽃을 먼저 만나고 싶은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구례의 상위마을로부터 시작해 광양 다압면, 하동읍에서 쌍계사에 이르기까지 섬진강과 이웃한 50리 하안 벚꽃 터널은 드라이브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하동구간은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으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그 경치가 아름답기 그지없다.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슬로시티**

밭길을 옮기는 곳곳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하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슬로시티’로도 꼽힌다. 슬로시티는 공해 없는 자연 속에서 전통문화와 자연을 잘 보호하면서 자유로운 옛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느림의 삶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하동지역 일대는 2009년 슬로시티로 선정되었다.

하동이 슬로시티로 지정된 데에는 악양면 평사리에 위치한 최참판택의 영향도 크다. ‘시간도 잠시 멈추는 그곳, 하동’이라는 슬로시티 주제를 대변하듯 최참판택에서 내려다보이는 들녘의 풍광은 농촌마을의 여유로움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평사리 일대를 배경으로 한 박경리 작가의 장편소설 <토지> 속에 등장했던 최참판택은 현재 주변 인물들의 집과 함께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조성되어 있다. 마을 가운데 나란히 서있는 소나무 두 그루는 <토지>의 두 주인공 이름을 따서 서희송(松), 길상송(松)이라고 불리며 옛 정취를 한껏 뽐낸다.

하동에 가면 꼭 둘러볼 곳 중 하나가 쌍계사이다. 쌍계사는 조계종 서부 경남 일원의 사찰을 총괄하는 본사로, 불교역사상 중요한 곳으로 손꼽힌다. 신라 성덕왕 21년(722년)에 대비, 삼법이란 두 승려가

“지리산 눈 쌓인 계곡 침꽃이 피어있는 곳에 봉안하라”는 꿈의 계시를 받고 절을 지었다고 유래되고 국보로 지정된 진감국사대공탑비를 포함해 보물 9점이 이곳에 보존돼 있다.

쌍계사는 주변을 둘러싸고 우거진 빛나무로 명성이 높지만, 층층이 계단처럼 보이는 녹차 밭도 볼거리다. 녹차는 하동의 특산품 중 하나로 2006년에 ‘녹차산업특구’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동녹차 재배면적은 전국의 23%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며, 인근에 차체험관과 다원이 위치해 있어, 여행객들이 쉽게 즐길 수 있다.

하동군 시내 중심에 위치한 하동송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다. 섬진강변의 너른 백사장으로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사시사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섬진강을 따라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그 외에도 하동은 ‘없는 것 말고는 다 있다’는 화개장터, 지리산 산줄기에 환인, 환웅, 단군을 모신 삼성궁이 위치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산수가 아름다운 하동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온 몸 가득 봄기운을 충전해 보자. ‘졸졸졸’ 흐르는 강물 소리와 ‘쌩악’ 두 뺨을 스쳐지나가는 바람은 고향에 온 듯 마음의 안식을 선사할 것이다.⊕



1 하동은 공해 없는 자연과 전통문화가 잘 어우러진 곳이다. 2 불교 역사상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쌍계사. 3 최참판택은 장편소설 <토지> 속에 들어온 것만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4 하동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동송림.



**꼭 한 번 둘러본 하동 맛집**

**해성식당**

알이 짝 찬 봄 참게는 이 계절에 맛볼 수 있는 음식 중 으뜸이다. 참게는 풍부한 키토산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좋은 식품이다. 대개나 꽃게에 비해 살이 적고 크기가 작지만 단단한 껍질을 ‘오드득 오드득’ 깨물면서 먹는 재미가 있다. 섬진강 일대에선 참게로 장을 담그거나 탕으로 끓여서 먹는다. 계딱지에 밥을 비벼 먹는 맛도 일품이다. 해성식당은 하동군이 주최한 ‘제5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으뜸음식맛자랑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참게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특히 참게탕에 넣은 시래기는 탕의 고소한 맛을 더한다. 참게탕 외에도 섬진강에서 잡아 올린 재첩을 곧바로 데쳐 먹는 재첩국 역시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가격** 재첩국정식 (8,000원), 참게탕 (대 55,000원, 중 45,000원)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48  
**문의** 055-883-2140

**단야식당**

쌍계사 입구에 위치한 단야식당. 관광지에서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간판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준수하는 영업시간에서 주인장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주인장의 자부심은 음식 맛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오직 지리산에서 채취한 나물을 재료로 조미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음식들은 가히 보양식이라 할만하다.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진 사람 들이라면 밍밍한 맛에 ‘음식에 간이 덜 됐다’고 느낄 수 있지만, 먹을수록 느껴지는 감칠맛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단야식당은 찬 성질의 메밀과 따뜻한 성질의 들깨를 섞어 만든 사찰국수가 별미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먹던 국수로 색다른 맛 경험을 할 수 있다.



**가격** 사찰국수(7,000원), 덕덕산채정식(15,000원), 산채비빔밥(7,000원)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석문길 2  
**문의** 055-883-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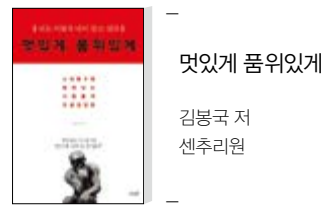
책 읽는 당신  
정리 편집부

생산관리팀 박성현 차장

# 더 나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고전이나 소설, 처세, 에세이 등 장르를 불문하고 책을 좋아한다는 박성현 차장은 잠들기 전이나 아이들과 공부할 때, 주말 오전 등 틈틈이 독서하는 노력파이다. "한 달에 1~2권 정도는 읽고 싶은데, 수리온 2차 양산사업이 시작되면서 업무에 치여 잘 지켜지지 않네요. '나도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부제가 달린 <멋있게 품위있게>는 나이 들수록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회사를 위해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평생 젊을 수는 없지만 멋지게 나이들 수는 있잖아요. 은퇴 후 인생 2막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품위있게>의 저자 김병국은 유명 경제신문의 기자를 역임하고 온라인 경제신문을 창업했다. 열정적으로 일하던 50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과 암 투병이라는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그는 운명 앞에서 '나이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고전과 역사 속 현자들, 멋지게 인생 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허우에서 찾아냈다. 책을 읽고 '나이 들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박 차장. 마음의 준비를 통해 은퇴 이후 닥칠 인생의 쓴맛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는 그의 말처럼, 매력 있는 인생 후반을 위해 삶의 가치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멋있게 품위있게  
김병국 저  
센추리원

## + 함께 읽어요!

'책 읽는 당신'은 사우님들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KAI인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감성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많은 여운을 남겨준 책이다.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너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왕석 수석기술원(시협교정직)

**히말라야의 선물**  
EBS 다큐프라임에서 제작한 '히말라야 커피로드'를 엮은 책이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네팔 말레마를 주민들의 순박하고 감동적인 커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다.  
이영제 연구원(전장설계팀)

**프로이트 정신분석 입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모르고 살아간다. 이 책을 통해서 '나'를 바로 아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준석 차장(장비구매팀)

**관계의 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잘 풀어낸 책이다.  
맹창준 과장(민항기사업팀)

**여덟 단어**  
자존, 본질, 고전, 건,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라는 여덟 단어를 주제로 인생의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차영수 차장(항공기공정관리팀)

감성에세이  
글 이희찬  
그림 이희찬

# '이런 사랑'을 주세요

사랑에 서투른 이들의 마음은 어찌면 '에스프레소'와 닮았다. 커피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쓴맛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각자의 취향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누군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라떼를, 누군가는 차갑고 달달한 모카를.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도, 그렇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달라는 사람은 없다. 각자의 취향대로 가꿔진, 완성된 '마음'만을 기다리곤 한다. 하지만, 사랑에서만큼은 '손님'의 입장이 아닌 '바리스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은 라떼 보다 부드럽고, 모카보다도 달다.



그리고, 원하는 음료가 만들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우리는 늘 각자의 취향대로, 원하는 것을 주문한다.

안녕하세요! 주문 하시겠어요? 어떤 음료로..  
음.. 저는 '아이스 카페모카'요. 취향은 배우세요!  
네-

서쩌면 우리는, 사랑도..  
저는.. '이런 사랑'으로 주세요!  
카! '간성'은.. 배우시구요  
'간성'은.. 배우시구요





# 당신의 노후 대비 선택은? 나에게 맞는 연금보험은 이것!

평균수명이 점차 길어져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하기엔 부족함이 많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다.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점검이 필요하다.

흔히 연금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라고 말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계 발원이 지난 1월 발표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실버세대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5.7%에 불과하다. 은퇴 후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에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자신의 나이와 자산규모, 투자성향에 따라 연금 상품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한다. 다만 1~3년 정도의 단기 상품보다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경제적으로 실속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개인연금 상품별로 조건과 방식 꼼꼼히 따져야

금감원의 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보험사의 상품으로 개인연금을 마련한다.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각각의 특성은 물론 보험료 납부방법이나 연금수령방식 등 여러 가지 가입조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크게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나뉘볼 수 있다. 또한 각 상품별로 연금수령기간, 납부방법 등을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전에 최종적으로 정하면 되는데, 크게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인데, 평균기대수명 이후까지 생존할 경우 연금총액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간에 사망하면 연금총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일단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급액을 일시금으로 찾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반면 확정형은 80세 혹은 90세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매달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정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상속형은 본인의 연금의 일부만 받다가 사망 후 가족에게 물려주는 방식이다. 납입방법은 적립식 또는 일시납 등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적립식의 경우 적립액과 납입기간, 거치기간과 수령기간 설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일시납(즉시연금포함) 역시 납입보험료와 거치기간, 연금수령형태, 부대비용 및 보증이율 등까지도 연금수령액의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설계 예시를 포함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단, 종신형이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산정하는 평균수명이 다르기 때문에 종신형, 확정형 중 딱히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고 싶은 가입자라면 종신형, 좀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가입자라면 확정형, 남은 가족의 삶까지 고려한다면 상속형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나에게 맞는 상품은?

은퇴를 앞둔 60대라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적립식 연금보다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는 즉시연금보험이 부담 없다. 일시납 1천만원부터 청약이 가능하며 예치한 후에는 가입한 다음 날부터 매월 일정액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연금보험처럼 납입 후 10년, 2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장점이 있고,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가입액 2억원 이하일 경우). 또한 상속 시에는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이라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적금 등 은행권의 저축상품보다 일반 연금보험이 훨씬 안정적이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은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 가능해 장기간 유지할 경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40대의 직장근로자라면 세제혜택이 좋은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다. 연금저축보험은 개인연금보험 중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연 400만원 씩(최대 48만원 세금 환급)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 기능도 존재한다. 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도 해지가산세가 부가된다.

또한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한다면 변액 연금보험도 좋은 방법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운용해 수익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결정되는 변액연금보험은 일반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수익률의 손해위험이 따를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를 대비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원금의 100~300%까지 보증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다.

연금상품은 조건에 따라 노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운용회사 별로 재정구조, 사업비 부과여부, 관리자 등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수익률, 두 가지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개인연금을 선택해 든든하게 노후를 준비해 보자. ☺





실패를 하더라도  
꿈을 위해  
도전한다

꾸준한 목표로  
실천하면  
극복할 수 있다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3월 시작 작심삼일 안녕~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좋은 3월, 당신은 무슨 결심을 하셨나요? 실패와 좌절을 견뎌 내고 이뤄낸 혹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당당히 이뤄낼 당신의 성공담이 궁금합니다.

노력으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한창 공부로 스트레스도 받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뇌수막염 증상으로 입원했다가 어린 나이에 참담하게 뇌종양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검사로 힘들고 지쳤을 때 저는 병실 안에서 저보다 더욱 아프고 힘들게 병을 이겨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병쯤은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꿈을 향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지금은 약을 먹으며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 고통은 계속되지만 결코 패배할 수 없다는 의지로 더욱 활기찬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항공우주공학과 2학년,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보다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정희조 님**

### 꾸준한 목표로 실천하면 극복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따라 다녔던 '작심삼일'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아차피 삼일이면 끝날 것' 작심해서 뭐해~'가 아니라 '작심삼일? 그럼 삼일마다 작심하지 뭐~'라는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 결과, 작심삼일이 작심일주일, 작심한달이 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네요. 지금까지도 '작심삼일'로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걱정마~ 삼일마다 작심하면 되잖아~'라고 이야기해주곤 합니다.

**홍세화 님**

### 실패를 하더라도 꿈을 위해 도전한다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항공우주공학과에 들어갈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항공관련 연구원으로 들어가 연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에 갈려면 학점을 높게 받아야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방학기간 동안 다시 마음을 다스리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설령 학점이 안 나오면 학교를 더 다니더라도 꼭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공부 외에도 진로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열역학 수업을 통해 배운 사이클 제작을 위해 열심히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겁니다. **위한빈 님**

### 노력으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이력서만 140통. 심각한 취업난에 백방의 노력을 해봐도 아무 곳에도 취업이 되질 않아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1년동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신입사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하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민석 님**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고등학교 2학년 때 KT-1 비행기에 대한 책을 읽고 항공우주 분야로 진출한 새내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고3 때부터 관심을 갖고 도전한 오니슈터비행체 만들기가 수능이 끝난 지금도 결과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3, 4개의 비행체가 실패로 돌아가고 현재 제작 중에 있었던 비행체도 동력이 많이 부족하네요. 항공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호기심에 도전한 것이지만 여러 실패를 맞보니 씁쓸하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처럼 앞으로 전공분야에 대해 좀 더 지식을 쌓고 다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김성준 님**

### 포기 하지 않는 꿈에 대한 열정

공군 전투기 조종사. 초등학교 4학년 때, 공참배 고무동력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김해공군기지를 다녀와서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꿈입니다. 간절한 꿈이었는데, 지난해 여름 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더 이상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 많이 좌절했습니다. 비록 꿈은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하늘과 항공기에 관한 저의 열정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었던 2013년을 발판으로 삼아 올해는 더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장원대 님**

### 꿈이 있기에 실패해도 포기란 없다

이제 고2 올라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 시절에 KAI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 항공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특히 T-50제작 과정을 보면서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파일럿이 꿈이었습니다. 7살 무렵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창밖으로 봤던 아름다운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후 비행기를 조종하는 캡틴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작심삼일의 실패도 많았고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꿈이 있기에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찬휘 님**

### 끊임없는 노력만이 목표를 이룰 지름길

늘 작심삼일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마음먹고 4일간 633Km 부산에서 인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6번의 자전거 펌크와 무더위와 열대야, 그야말로 즐기지 않으면 갈 수 없었죠. 첫날 계획보다 훨씬 더딘 이동에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서고 싶었지만, 야간 주행으로 무더위와의 싸움을 피하고 잠과의 싸움에 이겨서 4일 밤낮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 자전거종주가 저에게 좋은 성장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가간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이경준 님**

### 뜻이 있는 곳에 꿈을 이룰 길이 있다

공군 비행장이 있는 동네에 살던 어린 시절, 매일 같은 시간 집 앞에 나가 힘찬 소리와 함께 이륙하는 비행기들을 바라보며 웃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나빠진 시력 때문에 꿈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과 함께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깨닫고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꿈을 향해 수많은 훈련과 테스트를 거쳐 지금은 매일 수백, 수천 대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듣는 항공기 엔진 소리, 항공유 타는 냄새, 그리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 꿈을 이룬 지금도 매일 설레고 기쁩니다. **김두희 님**

###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의 즐거움

소소하지만 고등학교 때 취미로 농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자유투 라인에서도 공이 골대에 닿지 않는 것이 스스로 분해서 일 년 넘게 매일 슛 300개씩을 연습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자유투 라인, 그리고 결국 3점슛 라인보다 멀리서도 공을 넣으며 농구를 즐긴 것이 벌써 7년입니다. 노력을 통한 결실의 즐거움. 그리고 노력도 진정 원하는 것이라면 즐길 수 있다는 깨달음. 작은 취미에서지만 그것에서 배운, 제 인생의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명 님**

끊임없는  
노력만이 목표를  
이룰 지름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의  
즐거움

포기 하지 않는  
꿈에 대한 열정

뜻이  
있는 곳에  
꿈을 이룰  
길이 있다

꿈이 있기에  
실패해도  
포기란 없다

### 4월호 SNS Talk!

기억에 남는 하얀 거짓말,  
재밌었던 만우절 해프닝은?

4월 1일은 장난스런 거짓말은  
용서되는 만우절입니다.  
한바탕 웃음지었던 만우절  
추억을 떠올려보세요.

채택된 사연은 사보에 소개되고  
추첨을 통해 2명에게 항공기 모형을  
선물로 드립니다.

▶ QR코드를 찍으면 KAI 페이스북으로 이동합니다.

4월호 SNS Talk! ▶▶





**한국-인도네시아 방산협력의 상징 T-50, 인도네시아 실전 배치 완료**

지난 2월 13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주관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할림 비행장에서 'T-50i 전력화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도유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유스기안토로 국방장관, 물도고 통합군사령관 등 인도네시아 정부/군 관계자들과 하성용 KAI 사장,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김영선 주인



도네시아 대사 등 한국측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으며, T-50i 시범비행과 항공기 감항인증서 전달 등이 진행됐다.

우리 회사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와 T-50 계열 초음속 항공기 16대,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T-50i의 수출로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하게 됐다. 지난 1월까지 총 16대의 항공기를 페리비행으로 납품을 완료했는데, 페리비행을 통한 항공기 인도는 T-50i가 처음이다. 페리비행은 타국 영공 비행과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 등 어려움이 따른다. T-50i의 페리비행은 지난 해 9월 10일 1차 비행을 시작으로 2대씩 총 8회에 걸쳐 지난 1월 25일까지 진행됐으며, 1박 2일간 약 7시간 동안 대만, 필리핀 등 3개국을 경유해 5,700Km를 비행하는 일정으로 임무를 마쳤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슈퍼태풍 등 기상악화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등 외부 환경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하성용 사장은 T-50i 전력화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해 준 인도네시아에 감사의 전하며 "T-50i를 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후속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 에어쇼 참가, 국산 항공기 우수성 마케팅 펼쳐**

우리 회사는 지난 2월 11일~16일까지 열린 아시아 최대 방산항공우주산업 전시회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여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대한민국의 블랙이글팀과 인도네시아의 주피터팀 등 공중곡예팀의 화려한 공연이 싱가포르 상공을 수놓으며 시선을 끌었다. 특히 블랙이글팀과 주피터팀은 각각 우리 회사가 생산한 T-50B과 KT-1B를 운용하고 있어,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회사는 에어쇼에 참가한 70여 개국의 항공산업 및 군 관계자들과 만나 T-50, 수리온, MRO 등의 수주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성용 사장은 "우리 회사가 생산한 항공기가 싱가포르 에어쇼를 주도하고 있다는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며 "에어쇼 기간 최대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헬리콥터 FBW과제 항공기개조 기본설계 검토회의 실시**

우리 회사 회전익개발본부는 지난 2월13일~14일 양일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인 '헬리콥터 전자식 비행제어(Fly-By-Wire) 시스템 항공기개조 기본설계 검토회의'를 실시했다. 올해로 3년째 수행중인 이번 과제는 T-50 및 수리온 개발을 통해 확보된 비행제어 시스템 개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헬리콥터용 전자식 비행제어 시스템의 개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된 비행제어 시스템, 비행제어 컴퓨터, 엔지니어링 시뮬레이터, 비행제어 OFP S/W의 통합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 항공기에 탑재하여 지상 및 비행시험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기영 교수 등 검토위원들의 설계검토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했다.



Fly Together news

**페루 수출형 다목적 항공기 KT-1P, 초도비행 성공**



우리 회사는 2월 18일 실시된 페루 수출형 훈련기 겸 무장기 KT-1P 초도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12년 11월 KT-1P 20대, 약 2억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정부간(KOTRA-페루정부) 거래 방식으로 체결한 우리 회사는 페루 공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KT-1P를 개발하고 있다. KT-1P는 국산 기본훈련기 KT-1를 기반으로 첨단 항전장비와 무장능력 등을 향상시킨 다목적 항공기로, 오는 4월까지 KT-1P 기본형상의 시험평가를 마치고 15년 초까지 최종 무장형상에 대한 감항인증서를 정부로부터 획득할 계획이다.

우리 회사는 KT-1P 계약 분 20대 중 16대를 페루 현지에서 생산/납품할 예정으로, 지난 2013년 11월 페루 수도 리마 라스팔마스 공군부대에 공동생산 기지를 준공하기도 했다. KT-1 페루 공동생산기지를 통해 그동안 브라질 엠브레어 등 일부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거대 남미시장에 국산 항공기 생산거점이 확보됨에 따라 향후 중남미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787 주날개 기체구조물 수주**

우리 회사가 7천300여 억원의 보잉 B787 주날개 기체구조물을 수주하며 2014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05년 체결한 B787 주날개 기체부품 및 복합재 부품 설계·생산에 대한 추가 계약(2월 18일)으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0여 대분을 공급하게 된다. 올해 전체 수주목표 7조7천억원 중 3조원 이상을 기체구조물을 포함한 수출물량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인 우리 회사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생산 중인 모든 민항기 기종에 주요 기체구조물을 공급하며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B787, A350 등 신기종 개발에 국제공동개발로 참여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온 것을 물론 2010년과 2012년에는 보잉 올해의 협력업체(Supplier of the Year) 선정 및 2013년 아시아 유일의 에어버스 ASC(Aerostructure Supplier Council, 에어버스·협력업체간 최고 경영진 협의체)의 참여 등을 통해 보잉과 에어버스로부터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 등을 인정받으며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항공IT융합 산업동향 및 인증 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우리 회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항공IT융합 산업동향 및 인증 컨퍼런스'가 지난 2월 25일~26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공IT융합혁신센터 사업 현황 발표 및 항공IT제품 인증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 1단계 사업착수 회의 실시**



지난 2월 12일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 1단계 사업착수 회의'가 실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회사 개발 참여인원과 한

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사업단 등 약 3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 1단계의 성공적 사업수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회사는 한국형발사체 체계총조립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발사체 기술 및 발사서비스 능력을 확보하여 우주발사체 체계종합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협력업체 대상 2014년 경영설명회 실시**

우리 회사는 2월 24일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2014년 경영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2014년 경영목표,



동반성장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력업체들의 애로점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3년 혁신활동 성과공유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는데 총 6개사로 (주)울곡, 동영M&T, (주)라코, (주)부성, 삼우금속공업(주), 한국차공구(주) 등이다.

**16전비 115대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우리 회사가 생산·납품한 전술입문기 TA-50을 운용하는 16전비 115대대가 8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115대대

는 지난 2012년부터 TA-50을 통한 전술입문과정(Lead-In Fighter Training, LIFT) 운영으로 고등훈련을 마친 조종사가 정예 전투조종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약 5개월에 걸쳐 인도네시아 조종사 수탁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T-50 항공기와 한국 공군의 선진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Fly Together news



# Fly Together TALK BOX

사우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KAI인의 월간지 <Fly Together>는 KAI인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Fly Together>에 소개할 만한 KAI인, 프로 못지않은 동호회,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행복한 가족을 추천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추천이 모두 함께 소통하는 <Fly Together>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msj@kore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Event

## 2월호 당첨자

손목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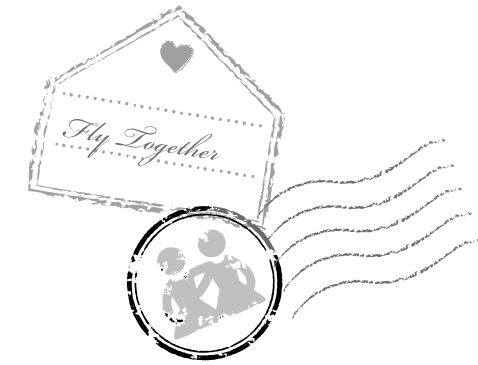
송용걸 차장(구매품질팀)  
정성훈 책임연구원(훈련체계개발1팀)  
정영규 님(사외독자, 충남 논산시)  
최현호 님(사외독자, 경기도 안성시)  
황태부 님(사외독자, 경남 사천시)

항공기 모형

송찬희 님, 홍세화 님

## 독자 퀴즈

Q 지난 2월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화려한 공중곡예를 선보인 대한민국 블랙이글팀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기종은 무엇일까요?



##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성공적인 T-50i 인도네시아 페리비행 납품과 한국형 발사체 체계총조립 업체선정 뉴스를 보며 다시 한 번 KAI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송용걸 차장(구매품질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멘토/멘티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멘토라는 주제의 기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서도 멘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성훈 책임연구원(훈련체계개발1팀)

항공정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다루는 사보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전의 항공기의 발전 및 미래 회전의 항공기의 전망 등의 사업이야기를 많이 다루주세요. 정영규 님

항공산업 육성과 함께 공군 전력의 중심핵으로 자리할 KFX, 이제 우리 군과 경찰을 시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수리온, 모두 새로운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어 성공하길 기원합니다. 시의적절하게 배치된 '멘토와 멘티' 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최현호 님

기업설명회를 통하여 살펴본 2014년 KAI의 미래비전 정말 대단합니다. 군수사업, 민수사업, 신규확장사업 부분 등으로 나누어서 세계 항공선진국 G7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KAI 임직원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황태부 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KAI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blog.koreaero.com



## 나를 변화시키는 하루 확인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라 어려운 것뿐이다. 나는 모든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나를 위한 하루선물> 중에서

## 누구에게나 처음은 힘들다

처음 걸으려고 할 때는 넘어졌다.  
처음 수영하려고 할 때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 놓치게 될 기회를 걱정하라.  
- 오리스 스퀘트 마든

당신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당신은 남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처음 경험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어려운 법입니다. 누구나 적응하고 숙달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의 어려움을 이겨내세요.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직위 \_\_\_\_\_

주소 \_\_\_\_\_

본부(실)명 \_\_\_\_\_ 팀명 \_\_\_\_\_

전화번호 \_\_\_\_\_

관계(사우가족의 경우) \_\_\_\_\_

□□□ - □□□

받는 사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략홍보팀 사보담당자

664 - 710





# Fly Together

e-mail : [msj@koreaaero.com](mailto:msj@koreaaero.com)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엽서는 당월 20일 도착분에 한합니다. 지면이 부족할 때는 메일을 활용해주세요.

01 이번호를 읽고 느낀 점을  
써주세요.

---

---

---

03 <Fly Together>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

---

02 다음호에 다뤘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

---

---

04 독자 퀴즈의 정답을  
적어주세요.

Q 지난 2월 열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화려한 공중곡예를 선보인 대한민국 블랙이글팀이 운용하는 항공기의 기종은 무엇일까요?

---

---

## POSTCARD

보내는 사람

□□□□ - □□□□

받는 사람

□□□□ - □□□□